

시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



박 남 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이 선출됐다. 그동안의 경험과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소화에 비춰볼 때 당선인의 기쁨은 순간이고 거대 통합특별시 교육을 이끌어 미래 도약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다란 무게로 다가오리라 짐작된다. 신임 교육감의 경력과 특별시 교육계 가족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시 교육이 특별시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4년 후 그 공과를 돌아볼 때 공(功)이 더 크게 남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교육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교육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통합특별시장도 독단적 결정권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자신이 전체 시민의 생각을 완벽히 대변한다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 전체 투표율에 득표율을 곱해보면 실제로는 과반수에 상당히 못 미치는 시민의 표를 얻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이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다. 교육감은 전권을 행사하는 독단적 결정자가 아니라 큰 귀를 가진 리더로서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청취하며 통합특별시민의 공감대 확대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재규정하기 바란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교육계의 갈등

비용은 줄어주고 행정 성과는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조직의 장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면, 행정 조직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

당선인에게 표를 준 사람들조차 선거공약 모두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건 공약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들의 생각까지 아울러 교육의 미래 방향을 새롭게 탐색해야 한다. 공약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가능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전문가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과감히 재구조화해 실천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이것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프랑스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년여 동안 학교의 사명, 학생의 학습 지원, 교육행정체제 개선을 주제로 한 1만3천여 회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백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디지털 생중계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는 이보다 적은 노력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를 담당하고 운영할 기구로는 단순 자문기구 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처럼 고유한 권한과 의결권을 가진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역대 교육감 중에는 선거 공신들의 부당하고 초법적인 간섭과 요구 때문에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인사와 예산 결정 과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관이 동참하도록 고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 기구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행정 성과를 높여줄 것이다.

아울러 현 대통령이 그러하듯이 주요 정책 결정 회의를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발언이 생중계될 때 사람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투명한 행정 제도가 안착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나 구(舊) 광주광역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바란다. 해당 지역민이 희망할 경우 시범적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직선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그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대거 위임할 것을 권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선관위 주관의 개인 선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선거공영제 형태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은 스스로 살아남 자생력을 얻게 될 것이며, 대도시 지역 교육지원청은 통합특별시 교육의 큰 흐름 속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린 행정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의 위와 같은 열린 리더십은 우리 특별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교육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훗날 역사가 기억하며 기리는 그러한 리더로 영원히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社說

중동전쟁 장기화로 소비자물가도 경총 뛰었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으로 전격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수는 12.01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을 대상으로 제값 정도를 반영하는 생활물가는 12.37로 3.5%나 경총 뛰었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21로 3.5%, 생활물가는 12.45로 4.1% 올랐다.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와 국제항공료 등은 물론이고 상품과 서비스 요금에 상당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품목별론 특히 석유류가 급등했다. 광주의 휘발유가 28%, 경유는 34.2%에 달해 두드러졌다. 계절적으로 여행 관련 수요가 집중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

수는 119.92로 상승률은 3.1%에 이른다. 2024년 3월(3.1%) 이후 가장 높다. 중동전쟁 이전인 올해 1월과 2월 각각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로 오르는 추세에서 5월에 3%대에 진입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2년여 사이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모두의 성장'을 역설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역대급 수출 실적을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해서 물가 안정이 핵심 전제가 되는 것이다. 호황의 역설이라더니,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 매점매석이 나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당국, 지자체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급 측 요인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총격과 커지지 않을까 우려를 더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대안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봄철 기온 이례적 상승, 역대급 여름 폭염 대비해야

올해 여름 최악의 무더위가 예고되고 있다. 이미 봄철에 기온 상승을 체감할 수 있었다. 광주·전남지역은 평균 13.8도로 역대 3번째를 기록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고온이 이어졌다. 평년 12.6도보다 1.2도, 지난해 13.1도보다 0.7도 오른 수치다. 기상청은 폭염과 열대야, 장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한다. 지속되는 이상 기후 현상을 바짝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한반도를 '고기압 이불'이 두 겹으로 덮어 찜통을 방불케 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하겠다.

집병관리청과 22개 시군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46개 등 총 70여 기관이 참여해 유기적 협력에 나선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지원사·장애인활동지원사·방문관리사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관리할 방침이다.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다. 기상청은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보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빈도와 강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원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감시설 운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약자와 노숙인 등을 위한 밀착 케어까지 선제적으로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 소방본부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9월까지 맞춤형 비상구급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등 2개 특보가 신설된다. 시민들의 체온도 제대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 건강수칙을 철저히 실천 하길 바란다.

현장칼럼



최 강 님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내 아이가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아동)라면?

일반적으로 지적 기능이 평균보다 낮지만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아동을 경계선 지능아동(느린학습자)이라고 한다. 이런 아동들은 학습 이해 속도가 또래보다 느리고, 일상적인 상황을 파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학습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느린학습자'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한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필요하거나, 일상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이는 아이가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아이의 느린 속도를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그렇다면 보호자들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전문적이고 거창한 방법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더 중요하다. 먼저, 설명은 짧고 구체적으로 나누어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이해하도록 요구하기보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 아이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그림이나 행동, 실제 경험을 함께 활용하면 학습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반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물어보거나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이해를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이때 "왜 또 물어봐?"라는 반응보다는 "다시 한 번 같이 해보자"라는 태도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 반복을 통해 익힌 경험은 아이에게 자신감을 쌓아주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느린학습자 아이들은 작은 성공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빠르게 해내는 것보다,

끝까지 해보려는 시도 자체를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것밖에 못 했어?"가 아니라 "끝까지 해낸 게 정말 잘한 거야"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다음 도전을 만들어낸다.

또한 또래 관계에서도 보호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단순히 상황을 해결해줄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어떤 말로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연습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짧은 역할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아동은 '부족한 아이'가 아니라 '조금 다른 속도로 배우는 아이'라는 사실이다. 적절한 이해와 환경, 그리고 반복적인 경험이 주어질 때 아동은 분명히 성장한다. 실제 현장에서도 맞춤형 지원과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느린학습자를 지원하는 출발점이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아이의 가능성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독자투고



6월 초입에 들어서며 하늘의 빛깔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습적인 폭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맞이하는 장마철이지만, 지역의 안녕과 재난 대비를 책임지는 경비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취약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긴장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는 결코 관(官)의 힘만으로 완벽히 막아낼 수 없다. 민과 관이 함께 상생하고 공생(共生)할 때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재난 방어벽이 세워지는 것이다.

민·관 공생이 재난 예방 위한 방어벽

공공의 노력은 '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질 때 비로소 100%의 효력을 발휘한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시는 성숙한 동참이야말로 인명 피해를 제로(Zero)로 만드는 최고의 예방책이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물이 불어난 하천변이나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경사지 인근은 피해야 하며, 재난문자나 방송을 통해 안내되는 대피 명령과 통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어야 한다. 또한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112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시민 제도, 내 집 앞 배수구를 확인하

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만 광주 전체의 안전망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자연재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이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경찰은 울림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과 관이 서로를 믿고 지향하는 '안전공생'의 정신이 있다면, 그러면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광주지역은 흔들림 없이 안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고송관·광주서부경찰서 경비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엔비디아 젠스 황 방한 일정 비교. 2025년 10월 방한: 1월 2일 경주 APEC CEO 서밋 참석차 방한, 반도체 시 페스티벌, 한국 정부 기밀에 엔비디아 블랙박스 GPU 26만 장 공급. 2026년 6월 예정: 최소 4월 5일(광주) 방한 기준 추후 대만 GTC 추후 한국 방한, AI 반도체 협력 및 한국 로보틱스 사업 투자 협의. 주요 협력 대상: 정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LG그룹. 주요 협력 대상: 삼성전자, SK그룹, LG그룹, 현대차, 투신로보틱스, 네이버, 엔비 등. 주요 인물: 이재명, 이재용, 정세진, 이상민, 정재호, 최태원, 구광모, 이재진, 김민석,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주요 활동: 삼성동 안부지점에서 지역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 주요 활동: TV 예능 출연, 야구 시구 등 추진중.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입문국 650-2019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